

박항서 전남 그만두고 황선홍은 부산 떠나고

K-리그 감독들 잇단 사퇴
광주 이강조 감독도 하차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의 박항서(51)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부산 아이파크의 황선홍(42) 감독도 지휘봉을 놓았다.

전남은 5일 "2008년 1월 부임해 3년 동안 구단을 이끌어 온 박항서 감독이 팀의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단에 용퇴 의사를 밝혔다"고 알렸다.

전남은 시즌이 끝나는 대로 선수단 정비 및 후임 감독 선임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 감독은 7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 소나타 K-리그 2010 30라운드 최종전 출장을 끝으로 전남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박 감독은 전남과 계약 기간이 1년 더 남아 있었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다.

전남은 올 시즌 정규리그 최종

전을 남겨놓고 7승8무12패(승점 29)로 11위에 처져 있으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상태다.

후임 감독으로는 전남에서 코치로도 활동했던 정해성(52)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 아이파크도 5일 "황선홍 감독과 만나 재계약을 협의했지만 결국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선수단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늦어도 21일까지 새로운 감독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부산은 올해 정규리그 초반 선두권을 유지했지만, 황선홍 감독의 포항 사령탑 내정설 여파로 후반기 들어 2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등 8승9무11패로 정규리그 8위를 차지해 끝내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한편, 광주 상무를 이끌었던 이강조(56) 감독도 최근 이수철(44) 코치에게 사령탑을 물려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저우 아시안게임 열기 고조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일주일 앞둔 5일 각종 선수단 입국으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개막식 리허설이 화려하게 진행됐다.

/연합뉴스

축구 金 박주영 빠져 위기

기성용 이어 소속팀 차출 거부... 홍명보호 악재

24년 만의 아시안게임 우승을 노리는 홍명보호의 스트라이커 박주영(AS모나코)이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지면서 태극전사들의 금메달 사냥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박주영의 소속팀인 AS모나코로부터 '박주영을 아시안게임 기간에 대표팀에 보내줄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며 "홍명보 감독도 광저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식을 접했다. 광저우에 도착하는 대로 K-리그 구단과 논의해 대체 선수를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원의 핵심 요원이었던 기성용(셀틱)에 이어 와일드카드로 선발한 '골잡이' 박주영까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게 돼 홍명보 감독으로서 대회 시작 전부터 최고의 악재를 만나게 됐다.

더욱이 일본 오키나와 전훈 과정에서 수비수 신광훈(포항)이 부상을 당해 교체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박주영 카드'까지 불발돼 전술 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박주영의 대체 선수로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백업 공격수로 활약한 이승렬(서울)과 올해 K-리그 득점왕을 예약한 유병수(인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아쉬운 표정의 박주영.

야구 우승 추신수가 선봉

KIA와 연습경기서 홈런포 작열



홈런포 터뜨린 추신수.

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의 간판 타자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연습경기에서 첫 홈런을 터트리며 타격 감각을 확실하게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와 연습경기에서 5회 솔로포를 날려 7-1 승리를 이끌었다. 6-1로 앞선 1사에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조태수가 던진 공을 잘 받아쳐 오른쪽 펜스를 훌쩍 넘겼다.

1일 KIA, 3일 롯데와 경기에서 단 1안타에 그치며 좀처럼 타격 감각을 찾지 못하던 추신수로서는 반가운 한 방이었다. 정규리그가 끝나고 나서 20여 일 휴식을 취한 추신수는 지난 25일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좀처럼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야구 대표팀은 8회까지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연일 맹타를 휘두르던 강민호(롯데)와 강정호(넥센)가 각각 2회와 4회 홈런을 날리는 등 타선이 터져 주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마운드에서는 대표팀의 유일한 아마추어 선수인 김명성(중앙대)이 선발로 나와 3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이어 고창성(두산), 안지만(삼성), 정대현(SK) 등이 마운드에 올라 구위를 점검했다. /연합뉴스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p>故 김삼수 님(남/51세)</p> <p>子/子婦: 김태경 / 태건 未亡人: 이영숙 호실201호 • 발인: 11월 6일 • 장지: 영락공원</p>	<p>故 이우진 님(여/82세)</p> <p>子/子婦: 지병남/김향자, 병찬/김인숙 女/婿: 지혜진/박부식, 선혜/조욱 호실101호 • 발인: 11월 6일 • 장지: 영락공원</p>
---	---

故 임재무 님(남/57세)

子/子婦: 임수환/김현숙, 면현/임혜영
 호실102호 • 발인: 11월 6일 • 장지: 영락공원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의 명복을 빕니다 弔

▲김창홍 씨 모친상 발인: 11월06일(토) 10시00분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50-4410 장지:광주 석정동 선영원 연락처:250-4409

▲김경철·기철씨 부친상 송영남·변경식 씨 부친상 발인: 11월06일(토) 08시00분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50-4407

▲나동찬·영선 씨 모친상 김서용 씨 빙모상 발인: 11월07일(일) 09시00분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 (062)250-4455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

무등 빌딩에서 시작하십시오!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주차시설이 완비 · 중앙 공급식 냉 · 난방시설 **쾌적한 업무환경**

무등빌딩 임대문의 062) 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면적 **330평/층** (분할임대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